《特別寄稿》

중국통신학회 현황연구

李 在 弘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부교수)

■ 차 례 ■

Ⅰ. 서 론
Ⅱ. 중국통신학회의 연혁과 조직
Ⅲ. 중국통신학회의 인적 구성
Ⅳ. 중국통신학회의 발간 활동
Ⅴ. 중국통신학회의 학술대회및 회의 개최
Ⅵ. 결 론

Ⅰ. 서 론

한국의 정치·경제적 필요와 중국의 경제적 필요에서 시작된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교류는 1980년대에 급속히 신장되어 외교관계 수립을 내다보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양국의 교류는 문화·학술등으로 그 폭을 넓혀 왔는데 중국 東北 3個省에 自治州및 自治縣등을[1] 형성하고 있는 180만 명을 넘는 한민족의 존재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은 1979년 농업에 責任制를[2] 도입한 이래 급속히 성장해 왔다. 중국의 통신·전자공업은 통치를 위한 통신·방송망 구축과 국방을 위한 무선통신, 항공우주전자, 제어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 결과 매우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전화통신망과 라디오·텔레비젼 방송망을 구축하고 항공우주 통신장비를 설계 생산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3,14]. 반면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생산기술은 낙후되어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4個現代化[3]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공업을 포함한 낙후된 경공업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자본유치와 기술전수에 노력하고 있다[4,17,20,32]. 중국은 한국의 전자공업의 생산성과 자동화의 정도가 중국에 적합한 모델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전자분야 합작투자 및 기술교류가 증대될 전망이고, 이와 함께 현재 미약한 통신등 전자분야 학술교류도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한중 간의 교류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의 통신분야 학술활동 현황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통신분야 학술단체는 학술지를 통하여 연구성과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신기술, 신정보를 전달하고 학술대회를 통하여 연구자간에 교류기회를 제공하므로, 통신관련 학술단체를 연구함으로써 통신분야 학술활동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전자·통신분야 학술단체에는 中國通信學會, 中國電子學會 등이 있고 광의로 中國音響學會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中國通信學會의 연혁, 조직, 인적구성, 발간활동, 학술대회 등을 다룬다.

국외에서의 중국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영미권, 일본, 홍콩 등에서 정책 및 산업의 관점에서 다룬 저술이 있을 뿐 학술현황을 다룬 저술은 발견되지 않았다[5,6,8-13,15,16,18-20]. 국내에서의 연구현황

1) 延邊朝鮮族自治州와 長白朝鮮族自治縣. 自治縣은 縣규모의 소수민족 자치행정 조직이고 自治州는 省과 縣의 중간규모의 소수민족 자치행정조직임.

2) Responsibility system. 농가가 생산한 수확물중에서 책임량을 국가 또는 人民公社에 내고 나머지는 농가의 소유로 하여 임의 처분할 수 있게 한 제도.

3) 1978년 中國共產黨의 第11期 3中全會議에서 확인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

을 살펴보면 학술 현황을 다룬 저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중국의 통신현황에 관한 기사를 그 간행물에 실었고[21-31], 전자공업진흥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각각 중국의 전자 및 통신산업에 관한 자료를 발간한 적이 있다[33-35].

Ⅱ. 중국통신학회의 연혁과 조직

2.1. 중국통신학회의 연혁과 성격

中國通信學會(종꾸어통신쉬에후에이[4], China Institute of Communications)는 비정부적 공학적 학술적 조직으로 1979년 9월 설립을 위한 常務理事會를 구성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하였다[1, 第1券 第1期]. 1980년 12월 第1屆 全國代表大會에서 中國通信學會章程을 통과시키고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중국통신학회는 기구상으로 中國科學技術協會(약칭 中國科協, 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 소속되어 있다. 중국과학기술협회는 國務院산하 國家科學技術委員會(Sta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ission)의 하부기구로서 중국의 과학 및 기술분야의 학술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며 정부와 국내기업의 과학기술문제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중국과학기술협회-각 학술단체로 이어지는 관계는 한국의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각 학술단체로 이어지는 관계보다 더 긴밀하다.

또한 중국 통신학회는 國務院 산하의 郵電部(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와 매우 긴밀한 인적, 재정적 관계를 갖고 있고, 中國共產黨도 인원파견 등으로 학회를 '지도'한다.

한편, 중국통신학회가 中國電子學會[5] 소속의 專業學會로 있다가 독립하였다는 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6]

2.2. 중국통신학회의 조직

가. 常務理事會

常務理事會는 全國代表大會에서 선출되는 理事長, 副理事長, 秘書長, 常務理事로 구성된다. 30여 명으로 구성되는 상무이사회 아래에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보급위원회의 3개 工作委員會와 상설사무기구인 판공실(辦公室)이 있다[1, 第1券 第1期].

나. 專業委員會

중국통신학회에는 다음의 10개 專業委員會가 있다.

1)반송파통신	2)마이크로파통신
3)광통신	4)데이타통신
5)영상통신	6)통신망
7)통신이론	8)전화교환기술
9)郵政網 및 자동화	10)통신설비제조기술

다. 지방조직

중국통신학회는 1979년 21개 省, 市, 또는 自治區[7]에 지방 통신학회를 결성하였다.

라. 학회본부

중국통신학회의 본부는 뻬이징(北京)에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뻬이징 시창안지에(西長安街) 13번지에 있는 우전부 내에 있다.

Ⅲ. 중국통신학회의 인적구성

중국통신학회는 國務院산하 郵電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집행부의 인적구성은 우전부의 영향을 받는다. 한 예로 우전부의 간부가 학회 간부를 겸임하기도 하고, 서로 옮겨 가기도 한다.

3.1. 중국통신학회의 현재 인적구성

1989년 5월에 구성된 第3屆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第1券 第1期].

이 사 장 : 리 위퀘이(李 玉奎)
부이사장 : 쑹 즈위앤(宋 直元)
우 여우서우(吳 佑壽)
리 윈성(李 云生)
통 즈펑(童 志鵬)

4)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옮기는 데는 崔玲愛-金容沃表記法 漢語併音表記法을 따랐다.
5) 中國電子學會(종꾸어띠엔쯔쉬에후에이, Chinese Institute of Electronics)는 1956년 창립총회에서 설립되고 1962년에 독립적인 학술단체가 되었다[2].
6) 저자가 1990년 10월 중국전자학회 사 종(沙 踪) 副書記長으로부터 들은 견해.
7) 市는 뻬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티엔진(天津) 등 중앙정부직할지구를, 自治區는 省 규모의 소수민족 자치지역을 지칭한다.

원 야린(溫 亞林)
비 서 장 : 리 위치(李 玉琦)
상무이사 : 니우 티엔지아(牛 田佳)
루 밍(呂 明)
리우 티엔르웨이(劉 天瑞)
쉬 민쉬앤(許 民軒)
리 뚜어서우(李 多壽)
리 츠엉수(李 承恕)
허 야오쿤(何 耀坤)
장 지아치(張 家琦)
츠언 지앙츠엉(陳 建成)
츠언 따오밍(陳 道明)
츠언 윈치엔(陳 韻천)
저우 지옹판(周 炯槃)
리앙 지엔(梁 建)
쩡 하이꿰이(曾 海桂)
러우 하이르어(樓 海日)
부비서장 : 왕 성누안(王 聖湲)

3.2. 중국통신학회의 인적구성의 변화

1979년 9월에 중국통신학회 설립을 위하여 38명의 상무이사로 구성된 임시상무 이사회에서 왕 쯔깡(王 子綱)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1, 第2券 第2期]. 왕 쯔깡은 1980년 12월 티엔진(天津)에서 개최된 중국통신학회 제1차전국대표회의에서 상무이사들과 함께 第1屆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왕 쯔깡은 1962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전자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1978년 10월부터 1981년 2월까지 郵電部長을 역임하였으니, 중국전자학회 이사장에 이어 우전부장 재임중 중국통신학회 임시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정식으로 이사장에 선출된 후 곧 우전부 부장직을 물러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학회간에 간부급 인적교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12월 중국통신학회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第1屆 이사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 사 장 : 왕 쯔깡(王 子綱)
부이사장 : 루 빠오웨이(呂 保維)
허우 떠위앤(候 德原)
지앙 원(江 文)
쑨 쥔르언(孫 俊人)
츠언 지우멍(陣 九銘)
우 여우츠운(吳 佑春)
후앙 팅(黃 亭)
리 위꿰이(李 玉奎)
옌 샤오펑(閻 曉峰)
비 서 장 : 저우 후아성(周 華生)
상무이사 : 루 쭝추엉(盧 宗澄)
예 페이따(葉 培大)
티엔 예(田 野)
루 샤오(呂 孝)
주 뿌루(朱 伯祿)
뚜 시위(杜 錫鈺)
츠언 티이이(陣 太一)
저우 지옹판(周 炯槃)
리 쉬에(李 雪)
양 언쩌(楊 恩澤)
쑹 떠르언(宋 德仁)
리 리(李 力)
츠언 싱옌(陣 星岩)
차이 원화(蔡 文法)
옌 후아(言 華)
까오 자오칭(高 兆慶)
츠언 윈치엔(陣 韻천)
저우 리앙쭈어(周 良佐)
꾸어 원자오(郭 文昭)
리앙 르우츠운(梁 汝醇)
윈 야린(溫 亞林)
펀 츠운사오(彭 淳紹)
췌이 쓰지우(崔 思九)
치엔 지아즈(天 家治)

제1계 이사회 부이사장 쑨 쥔르언(孫 俊人)은 1980년 12월 현재 中國電子學會 부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1989년 구성된 第3屆 중국통신학회 이사회 이사장 리 위꿰이(李 玉奎)는 1964년 2월부터 1987년까지 郵電部(때로는 交通部로 통합되기도 하였음) 副部長을 역임하였고, 1980년 12월 구성된 第1屆 이사회때부터 부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7]. 第1屆 이사회 구성원 중 1989년 5월에 구성된 第3屆 이사회에 남아있는 인원은 단2명으로 보아 대폭적인 교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떵 샤오핑(鄧 小平) 주도의 경제개혁정책이 1979년 이후 지속된 점으로 볼 때 보수성향의 구성원들이 개혁성향의 구성원들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이사장 쑹 즈위앤(宋 直元)은 1984년 11월부터 1990년 현재까지 우전부 부부장에 재임중이다. 상무이사 루 밍(呂 明)은 1986년 2월부터 1989년 2월

까지 우전부 산하 電信總局 局長을 역임하였다. 상무이사 리우 티엔르웨이(劉 天瑞)는 1988년 3월부터 1990년 현재까지 우전부 산하 郵政總局 局長에 재임중이다.

중국통신학회 이사회의 구성원은 우전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국전자학회와도 상당한 교류가 있음을 보았다. 또한 중국통신학회의 이사회 구성원이 1980년대 중에 대폭 교체되었음을 보았다.

Ⅳ. 중국통신학회의 발간활동

학회는 발간활동을 통하여 회원에게 연구성과 발표의 場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과 소식을 전달한다. 학회의 발간물의 성격, 수준, 분량, 분야 분포 등을 분석함으로써 그 학회의 지향하는 바와 회원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다.

중국통신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성 정기간행물은 通信學報(통신쉬에빠오, Journal of China Institute of Communications)이다. 통신학보의 성격은 1980년 10월 第1券 第1期 창간호에 실린 중국통신학회 이사장 겸 郵電部長 왕 쯔깡의 발간사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 · · ·'通信學報'는 중국통신학회가 주관하는 통신과학기술의 학술적 간행물이다. (통신학보는) 통신 각 분야의 창조적 학술논문, 통신과학기술의 최신성취, 특정 제목에 대한 평론, 종합비평 소개의 글 및 국내외 학술동태 등을 싣는다. (통신학보의) 주요임무는 학술상의 百家爭鳴을 전개하고, 경험을 교류하고, 통신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4個 現代化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 · ·

통신학보의 대상독자는 각부문 통신사업에 종사하는 과학연구인원, 공학기술인원,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교수, 대학원생과 고학년 대학생이라고 通信學報 征稿簡則(원고투고 규정)에 밝혀져 있다[1]. 通信學報는 1980년 10월 창간된 이후 旬刊으로 1, 4, 7, 10월에 각 한 期(한국어 용어의 號에 해당)씩 발간되다가, 1986년 제 7권부터 격월간으로 1, 3, 5, 7, 9, 11월에 각 한 期씩 발간되고 있다. 각 期의 크기는 사육배판이고 분량은 창간이래 95~120쪽 정도이다.

원고는 창간호부터 1983년 제1기까지 '論文', '技術報告', '綜論', '通信', '新技術講座', '學術動態', '簡訊', '新書評', '專載'의 9가지로 구분 게재하였다. 1983년 제2기 이후부터는 대체로 '學術論文', '技術報告', '綜論', '短文', '學術通信', '新技術介紹', '學術動態', '新書評'의 8가지로 구분 게재하고 있다.

이 8가지의 구분은 通信學報 征稿簡則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학술논문 : 학문분야 발전에 대한 적극적 가치와 함께 창조적인 것이 있는 논문.
- -기술보고 : 국민경제건설을 향한 창조적 연구 및 개발성과 보고. 기술상으로 앞서고 내용이 완전하여야 함.

위의 두 종의 원고는 매편 자수가 7000字를 넘지 않아야 함.(요약, 그림, 참고 문헌 포함)

- -종 론 : 통신과학기술의 새로이 일어나는 또는 활발한 분야를 겨눈 통신이론, 방식, 시스템, 설비, 부품등의 국내외 발전상황 및 추세의 전반적 체계적 종합적 평론. 자수가 8000자를 넘지 않아야 함.
- -단 문 : 창조적인 또는 새로운 견해. 단, 완전한 성과를 요구하지 않음. 자수가 4000자를 넘지 않아야 함.
- -학술통신 : 간결히 표시한 개인의 학술적 새로운 견해, 새로운 사상, 학문분야 발전에 대한 건의, 관련있는 문헌중의 문제에 대한 토론, 일정한 실용 또는 추진 가치가 있는 연구성과의 개요 보도. 자수가 4000자를 넘지 않아야 함.
- -신기술 개소 : 통신의 중요한 신개념, 신이론, 신방법, 신문제에 관련한 강술. 자수가 7000자를 넘지 않아야 함.
- -학술동태 : 국내외 학술활동 소개, 과학성과의 간결한 보도 및 기타 간결한 소식.(1983년 제2기 이전의 簡訊).
- -신 서 평 : 중대한 공헌 또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출판도서에 대한 평가 소개.

각 구분별 연도별 게재 문건의 수와 쪽수를 표 4.1에 보인다.

표 4.1에서 學術論文(및 技術報告)가 편수 45.8%, 쪽수 58.9%로 창간이래 통신학보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短文과 學術通信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쪽수는 많지 않으나 學術動態도 많은 편수가 실리고 있다.

학술지에 실리는 분야별 논문분포는 분야별 학술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분야별 학술활동 수준은 산업의 기술 수요공급과도 관련이 있다. 통신학보에

표 4.1 구분별 通信學報 게재 문건 편수

(a)구분 개편전. 1980년 第1期-1983년 第1期

년도	1980	1981	1982	1983	계	기 평균	
기수	<1>	4	4	1	9<+1>	편수(쪽수)	백분율,%
조사 구분 기수	<1>	3	4	1	8<+1>		
논문	구분없이 게재	27(241)	34(273)	8(67)	69(581)	8.63(72.6)	58.0(74.5)
기술보고							
종론		2(19)	4(36)	1(6)	7(61)	0.88(7.6)	5.9(7.8)
통신		2(6)	6(29)	3(14)	11(49)	1.38(6.1)	9.2(6.3)
신기술강좌		2(21)	4(36)		6(57)	0.75(7.1)	5.0(7.3)
학술동태		3(7)	1(3)		4(10)	0.5(1.3)	3.4(1.3)
간신		5(5)	11(11)	1(1)	17(17)	2.13(2.1)	14.3(2.2)
신서평		2(2)	3(3)		5(5)	0.63(0.6)	4.2(0.6)
전재							
계		43(301)	63(391)	13(88)	119(780)	14.9(97.5)	100(100)

· 구분별 숫자는 편수, 괄호 속의 숫자는 쪽수임.
· 조사기수는 자료가 수집된 기수를 나타냄.
· 〈 〉로 표시된 기의 게재문건은 구분계수되지 않았음.
· 간신은 다른 문건이 게재된 여백에 실리는 경우가 있어서 쪽수가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음.
· 편집후기, 원고투고규정, 매년 마지막 期의 권말에 실리는 년목록은 제외하였음.
· 1983년은 4기중 제1기만 포함되었음.(제2기~제4기는 표 4.1(b)에 나타냄)

(b)구분 개편 후. 1983년 第2期-1989년 第6期

년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기 평균	
기수	3	4	4	6	6	6	6	35	편수(쪽수)	백분율,%
조사 구분 기수	3	4	4	6	1	0	6	24		
학술논문	21(150)	27(211)	34(255)	42(331)	6(53)		42(295)	172(1295)	7.17(54.0)	42.2(53.9)
기술보고	4(31)	5(35)	2(15)	7(80)	1(7)		10(74)	29(242)	1.21(10.1)	7.1(10.1)
종론	1(8)	1(11)	2(13)	2(23)			2(21)	8(76)	0.33(3.17)	2.0(3.2)
단문	4(26)	7(32)	7(44)	9(54)	4(22)		28(145)	59(323)	2.46(13.5)	14.5(13.4)
학술통신	11(48)	20(102)	11(52)	18(89)	3(13)		13(55)	76(359)	3.17(15.0)	18.7(14.9)
신기술개소	2(25)		1(3)				1(7)	4(35)	0.17(1.46)	1.0(1.5)
학술동태	8(8)	7(8)	10(10)	19(19)			6(5)	50(50)	2.08(2.08)	12.3(2.0)
신서평			2(2)				2(2)	4(4)	0.17(0.17)	1.0(0.2)
기타	1(1)		1(3)	2(13)			1(2)	5(19)	0.21(0.79)	1.2(0.8)
계	52(297)	67(399)	70(397)	100(609)	14(95)		105(606)	407(2403)	17.0(100.1)	100(100)

· 구분별 숫자는 편수, 괄호속의 숫자는 쪽 수임.
· 조사기수는 자료가 수집된 기수를 나타냄.
· 간신은 다른 문건이 게재된 여백에 실리는 경우에 있어서 쪽수가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음.
· 기타는 기념사(1983년 제4기), 서문(1985년 제1기)등임.
· 편집후기, 원고투고규정, 매년 마지막 기의 권말에 실리는 년목록은 제외하였음.
· 1983년은 제2기-제4기가 포함되었음. (제1기는 표4.1 (a)에 나타내었음)

표 4.2 분야별 通信學報 게재 논문 및 기술보고 편수

년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기 평균	
조사 기수	4	4	4	4	4	6	6	6	6	44	편수	백분율 %
분야구분 기수	3	4	4	4	4	6	1	0	6	32		
1. 통신이론 및 통신시스템	4	4	4	6	3	7	1		10	39	1.22	14.4
2. 무선 및 이동통신		1	1	2	2					6	0.19	2.2
3. 위성통신		1				1			8	10	0.31	3.7
4. 마이크로파 및 전파전파	7	2	9	3	5	7	3		8	44	1.38	16.3
5. 암호기술				2	1	2				5	0.16	1.9
6. 데이타 통신	1	2	2	1		5	1		2	14	0.44	5.2
7. 전자교환 및 통신망	1	1	1	1	4	5	1		5	19	0.59	7.0
8. 광통신	1	2	5	3	7	1			1	20	0.63	7.4
9. 광학 및 양자전자	2	3	1	4	7	2			3	22	0.69	8.1
10. 신호처리	2	3	3	2	2	3	1		7	23	0.72	8.5
11. 영상처리	1	2	2	2	2	7			5	21	0.66	7.8
12. 방송기술				1		1			1	3	0.09	1.1
13. 회로망	1	1	2	1	1	1			2	9	0.28	3.3
14. 통신전자회로	3	8	1	4	2	2				20	0.63	7.4
15. 통신부품	1	2								3	0.09	1.1
16. CAD 및 컴퓨터	2	2	2			4				10	0.31	3.7
17. 기타	1					1				2	0.06	0.7
계	27	34	33	32	36	49	7	0	52	270	8.44	100

· 기타에는 정보통신(ISDN 분야)과 자동제어가 각각 한 편씩 포함되어 있음.
· 조사기수는 자료가 수집된 기수를 나타냄.

실린 논문 및 기술보고의 분야별 편수를 연도별로 표 4.2에 보인다. 분야구분은 대한전자공학회 학술연구위원회 구분과 한국통신학회의 연구분과위원회 구분을 토대로 하였다.

표 4.2에서 분야구분 1-4의 무선통신관련 분야의 편수가 36.7%로 가장 많고, 분야구분 10-11의 신호처리 분야가 16.3%, 분야구분 8-9의 광통신관련 분야가 15.6%, 분야구분 6-7의 데이타통신 및 교환망이 12.2%의 순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분야별 학술발표는 현재 중국의 통신의 시설, 기술및 산업 현황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10년의 조사기간 동안 ISDN에 관한 논문이 단 1편인데 이것은 중국의 통신망이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매우 기본적 전화망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ISDN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을 나타낸다고 추정된다.

중국통신학회의 학술성 정기간행물인 通信學報는 국내외 통신분야 학술정기간행물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이며, 내용의 분야별 분포는 중국의 통신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았다.

V. 중국통신학회의 학술대회 및 회의 개최

학회는 단체로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학술교류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가 주최하는 제반 회의와 학술대회의 개최방식, 시기 및 내용은 그 학회의 성격과 기능을 단편적으로 나타낸다.

5.1. 중국통신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는 중국통신학회가 직접 주최하는 학술대회와 중국통신학회 산하 專業委員會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로 나누어진다.

중국통신학회가 직접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80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티엔진(天津)에서 개최된 중국통신 학회 제1차 전국대표대회 장소에서 학술교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학술논문 및 기술보고 128편이 발표되었다[1, 第2券 第1期].

1989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중국통신 학회 제3屆 이사회 제1차회의가 끝난 직후 하루 동안 학술보고회를 하였다. 여기서 11명

의 통신과학전문가, 학자 및 영도간부가 학술보고를 하였다[1, 第10券 第4期]. 학술보고는 "中國通信學會 第3屆理事會 第1次會議 學術報告會論文集"에 실려 있다.

1990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난징(南京)에서 全球衛星通信會議(전구 위성통신학술대회)가 중국통신학회, IEEE Communications Society 및 INTELSAT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1, 第10券 第4期].

중국통신학회 산하의 전업위원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79년 중국통신학회 설립을 위한 임시상무이사회에서 구성한 10개 전업위원회중 9개 전업위원회가 전국규모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모두 400여명 통신전문가가 참석하여, 4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1, 第1券 第1期]. 이 때는 중국통신학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지도 않았고, 通信學報도 창간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5.2. 중국통신학회의 기타 회의 개최

중국통신학회가 개최하는 회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全國代表大會와 理事會이다. 전국대표대회는 필요에 따라 드물게 개최되고, 횟수에 따라 第 몇 次로 호칭되며, 이사회는 구성에 따라 第 몇 屆로 호칭되고, 회의 횟수에 따라 第 몇 次 회의로 호칭된다. 이는 中國共產黨의 全國人民代表大會, 中央委員會 全體會議등의 체계 및 호칭과 흡사하다. 중국통신학회 전국대표대회와 이사회의 회의구성과 규모, 진행 방식에 예는 다음과 같다.

1980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티엔진(天津)에서 중국통신학회 第1次 전국대표회가 개최되어 工作報告를 통과시키고, "中國通信學會章程"을 통과시키고, 제1계이사회 이사 130명을 선출하였다[1, 第2券 第1期]. 그 다음날인 12월 19일에 중국통신학회 제1계이사회 제1차회의가 개최되어 상임이사회를 선출, 구성하였다. 제1차 전국대표회에는 국무원 산하 여러 部, 25개 省, 市, 또는 自治區와 28개소의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대표 258명이 참석하였다.

1989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난징(南京)에서 중국통신학회 제3계이사회 제1차회의가 개최되어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였다[1, 第10券 第4期]. 이 회의에 제3계이사회 이사, 제2계이사회 이사일부, 特邀代表('특별대표'의 뜻)등 123명이 참석하였고, 中國科協 組織人事部 副部長, 郵電部 副部長도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中國科協 第3屆 第4次全體委員會에서 만든 "中國科學技術協會의 改革問題"보고도 학습하였다.

중국통신학회의 이사회 회의는 형식은 물론 진행 방법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을 모방하고, 중국공산당의 노선을 학습, 확산보급하는 역할도 가지고있음을 보았다. 또한 인적, 재정적으로 유대를 맺고있는 郵電部등 행정기관이 중국통신학회의 사업방향에 지도, 간여할 여지가 많음을 보았다. 중국통신학회의 학술대회는 이사회에 이어지는 부수적인 발표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Ⅵ. 결 론

中國通信學會는 1980년에 설립된 통신분야 학술단체이다. 중국통신학회는 1962년에 설립된 中國電子學會에 專業學會로 소속되어있다가 사실상 분리독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통신학회는 기구상 中國科學技術協會에 소속되어 있으며 國務院 산하의 郵電部와 인적, 재정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통신학회는 베이징(北京)에 본부를 두고 적어도 省, 市, 自治區 단위까지 전국적인 지방 학회조직을 가지고 있다. 중국통신학회는 조직상 理事會와 全國代表大會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의 체계와 시기구분의 호칭 등은 中國共產黨의 中央委員會 全體會議와 全國人民代表大會를 따르고 있다.

중국통신학회는 활발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적어도 1종 이상 활발한 학술성 정기간행물 발간 실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통신관련 학술단체의 종류, 성격, 조직, 인적 구성, 발간활동, 회의 개최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 조사에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한국 및 미국 도서관의 소장문헌에 의존함으로써 자료의 제한이 불가피하였는데 향후 중국 도서관의 소장문헌에 의존함으로써 자료의 제한이 불가피하였는데 향후 중국 도서관의 소장문헌도 사용한 중국의 각 분야 학술활동에 관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북방정책,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 국제정세 변화와 양국의 교역증대에 따라 양국의 학술교류가 해마다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통신을 포함하는 전자공학분야의 한국·중국간의 학술교류도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의 학술교류 증진에 있어 긴요한 것 중의 하나는 상대국의 언어로 된 一次자료를 해독할 언어능력을 갖춘 해당 학술분야 전문인이

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어 일차자료를 해독할 언어능력을 갖춘 전자공학자등 공학자가 거의 없는 반면, 중국에는 한국어일차자료를 해독할 능력을 갖춘 전자공학자가 최소한 수요를 충족할 만큼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양국간의 대등한 학술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기술합작등 양국간의 전자분야 경제·기술 교류에도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교육부, 체신부등 유관 정부기관 및 전자산업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전자공학 전문지식과 중국어를 포함하는 어학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을 양성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참 고 문 헌

• 中國·홍콩 발간자료

1. 中國通信學會, 通信學報, 第1券 第1期-第10券 第6期, 1980.10.-1989.11.
2. 中國電子學會, 학회 소개 소책자, 1987?
3. 中國機械電子工業年鑑 編輯輯委員會, 中國機械電子工業年鑑. 中國 北京 : 機械工業出版社, 1986.
4. 李泊溪, 張澤厚, 翟立功, 中國技術改造問題研究(上, 下 兩册), 上册 pp.1-3, 下册 pp.1-4, pp.591-607, 山西人民出版社, 1984.11.
5. China Media Development Incorporation, editor, China Directory of Industry and Commerce 1989. vol. I, pp. D.283-347, Hong Kong : N.C.N. Limited, Hong Kong & Jardine Printing, 1989.
6. China Media Development Incorporation, editor, China Directory of Industry and Commerce 1989. vol. Ⅲ, pp. A.81-A.82, Hong Kong : N.C.N. Limited, Hong Kong & Jardine Printing, 1989.

• 日本 발간자료

7. フヂオプレス 編輯者, China Directory in Pinyin and Chinese(中國組織別人名簿). Radiopress Inc., 年刊, 1980-90.
8. 1987年次 中國郵電事業報告書, 電氣通信(Telecommunications). vol. 51, no.493, pp.59-70, 1988.1.
9. 電氣通信協會, 電氣通信. vol.51, no.493, pp.59-70, 電氣通信協會, 1988.1.
10. 日本電信電話株式會社國 企劃室, 世界テレコソニコス. no. 94, pp. 1-3, 日本電信電話株式會社國 企劃室, 1986.2.1.
11. 郵政省通信政策局, 電氣通信時報 (Telecom Report). vol.4, no. 12, pp. 28-35, 郵政省通信政策局, 1987.12.
12. 郵政省通信政策局, 情報通信ジャナル 9. vol. 8, no. 9, pp. 22-24, 郵政省通信政策局.
13. 日本電子工業振興會, 電子工業月報, 2月號, vol. 30, no. 2, pp. 65-70, 日本電子工業振興會, 1988.2.
14. 丸山伸郎, 中國の 工業化と 産業技術進步. アジア經濟研究所,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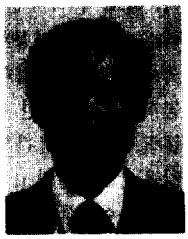
• 미국·영국 등 발간자료

15. Richard P. Suttmeier, Science, Technology and China's Drive for Modernization. Stanford : Hoover Institute Press, 1980.
16. Leo A. Orleans, Science in Contemporary China.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80.
17. Richard Conroy, "Technological Innovation in China's Recent Industrialization," China Quarterly, no. 97, pp. 1-23, March 1984.
18. Rustam Lalkaka and Wu Mingyu, eds., Managing Science Policy and Technology Acquisition : Strategies for China and Changing World Dublin : Tycooly International Pub. 1984.
19. Helmut Opletal, The Information Policy of the PRC : 1965-1976. Bochum : Brockmeyer, 1981.
20. Samuel P. S. Ho and Ralph W. Heunemann, China's Open Door Policy : the Quest for Foreign Technology and Capital : a Study of China's Special Trade. Vancouver : Univ.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 한국 발간자료

21. 최 태홍, 국내외 전기통신 동향및 정책분석, 전자통신연구소, 1988.
2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근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중공의 전기통신," 주간기술 동향 TIS-86-3. pp. 34-47,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6.1.
23. 편집부, "중공의 전기통신 개관," 주간기술동향, TIS-87-11, pp. 1-13,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7.3.
24.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세계의 전기통신 현황 특별조사 보고서, TIS-IS-10.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7.9.
25. 강 희일, 우 동진, "중공의 전기통신 현황(Ⅰ)," 주간기술동향, TIS-88-08, pp. 16-27,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3.
26. 강 희일, 손 홍, "중공의 전기통신 현황(Ⅱ)," 주간기술동향, TIS-88-10, pp.15-29,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3.
27. 강 희일, 손 홍, "중공의 전기통신 현황(Ⅲ)," 주간기술동향, TIS-88-12, pp. 16-25,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4.
28. 강 희일, 이 윤철, "중공의 전기통신 현황(Ⅳ)," 주간기술동향, TIS-88-13, pp. 1-14,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4.
29. 강 희일, "중공의 전기통신 현황(Ⅴ)," 주간기술동향, TIS-88-16, pp. 1-11,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5.
30. 강 희일, 윤 길배, "중공의 전기통신 현황(Ⅵ)," 주간기술동향, TIS-88-17, pp. 1-1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5.
31. 편집부, "중국의 통신시장," 주간기술동향, TIS-88-48, pp.70-74.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88. 12.
32. 이 학규, "중공 기술도입 정책의 전개과정," 공산권 경제, pp. 28-41, 1985.9.
33. 韓國貿易協會, 中共의 通信産業現況과 展望. 韓國貿易協會, 1987.
34. 韓國貿易協會, 中共의 마이크로 컴퓨터 産業現況과 展望. 韓國貿易協會, 1987.
35. 韓國貿易協會, 中國의 産業技術 現況과 展望. 韓國貿易協會, 1989.



李 在 弘

- 1972. 3.~76.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공학사
- 1976. 3.~7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1981. 9.~86. 8. University of Michigan 전기공학및 컴퓨터과학 공학박사
- 1978. 8.~81. 7.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해군대위 교관, 전임강사
- 1983. 9.~86. 6. University of Michigan 연구조교
- 1987. 2.~91. 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
- 1991. 1.~92. 1. AT&T Bell 연구소 방문교수(연구원)
- 1991. 4.~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교수